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의 관형사형어미 '-(으)ㄹ' 결합 구성에 대하여

權容璟
神田外語大学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상급 교재(고급 교재)에 제시된 관형사형어미 ‘-(으)ㄹ’ 결합 구성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으)ㄹ’ 결합 구성은 한국어 교재의 목차에서 문법 사항으로 제시된 ‘-(으)ㄹ’ 결합 구성이다. 본고에서 다룬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와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가 포함되는데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이다.¹⁾ 그리고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로 다루는 것은 <韓國語上級(李昌圭, 2010)>과 교재는 아니지만 한글能力檢定試驗協會에서 나온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문법 사항을 가르칠 것인가는 한국어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이다. 이때 참고를 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 한국어 교재인데 잘 구성된 한국어 교재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교재마다 제시하고 있는 문법 사항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더 많아지게 된다. 사실 초급이나 중급 과정은 문법 사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 교재도 많은 데 비해 상급 과정은 한국어 교재마다 다루고 있는 문법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재 중에는 초급이나 중급에서 다루는 문법 사항을 제시하는 교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 과정에서 어떤 문법 사항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으)ㄹ’ 결합 구성을 중심으로 상급 교재를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상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으)ㄹ’ 결합 구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핀다. 관형사형어미 ‘-(으)ㄹ’ 결합 구성은 크게 ‘의존명사 구성, 일반명사 구성, 어미 구성’으로 나누어 다루게 된다. 관형사형어미의 특성 상 ‘-(으)ㄹ’ 앞에 의존명사나 일반명사가 결합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으)ㄹ’이 포함된 형태가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다루게 될 것이다.²⁾

그리고 ‘-(으)ㄴ’ 결합 구성의 분석을 통해 관형사형어미 ‘-(으)ㄴ’의 특성도 살펴보겠다. 관형사형어미 ‘-(으)ㄴ’은 한국어에서 잘 사용되는 표현이면서 외국인이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 교재에서 이를 적절히 선택하고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으)ㄴ’ 결합 구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기존의 상급 교재와 한국어 문법서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급 교재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ㄴ’과 관련하여 어떤 표현을 제시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사실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문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논의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겠다. 문법 사항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문법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2. 한국어 상급 교재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 분석

2.1.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서울대 한국어 4>에서 다루는 ‘-(으)ㄴ’ 결합 구성은 14 개 정도이다. 이를 의존명사 구성, 일반명사 구성 등으로 나누면 의존명사 구성은 7 개 정도이다.

(1) 서울대 한국어 4

- 가. 의존명사 구성: -(으)ㄴ 리가 없다, -(으)ㄴ 만큼, -(으)ㄴ 게 뻔하다,
 -(으)ㄴ 듯하다, -(으)ㄴ 수조차 없다, -(으)ㄴ 줄이야,
 -(으)ㄴ 줄 누가 알았겠어요? (7)
- 나. 일반명사 구성: -(으)ㄴ 정도이다/정도로, -(으)ㄴ 확률이 높다,
 -(으)ㄴ 전망이다, -(으)ㄴ 경우(예)(는)³⁾ (4)
- 다. 어미 구성: -(으)ㄴ지도 모르다, -(으)ㄴ지 -(으)ㄴ지 (2)
- 라. 복합 구성: -(으)ㄴ래야 -(으)ㄴ 수(가) 없다 (1)

(1)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 한국어 4>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앞에 의존명사와 일반명사가 결합된 ‘-(으)ㄴ 리가 없다, -(으)ㄴ 정도이다’ 같은 구성이 대부분이고 어미 구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으)ㄴ지도 모르다, -(으)ㄴ지 -(으)ㄴ지’ 정도이다. 그리고 ‘-(으)ㄴ래야 -(으)ㄴ 수(가) 없다’는 앞쪽에는 어미 구성이 뒤쪽에는

- 가. 의존명사 구성: -(으)르 듯이,⁵⁾ -(으)르 바⁶⁾ (2)
- 나. 일반명사 구성: -(으)르 정도⁷⁾ (1)
- 다. 어미 구성: -(으)르지라도, -(으)르뿐더러,
-(으)까 말까 생각 중이다,
-이라도 -(으)르까 보다 (4)
- 라. 복합 구성: -(으)르래야 -(으)르 수 없다 (1)

(4 다)의 어미 구성에 나오는 표현은 모두 연세대학교 교재에 나오는 어미 구성과 일치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경희대학교의 <한국어고급 I>, <한국어고급 II>의 경우 ‘-(으)르’ 결합 구성이 18 개 정도 나타난다.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 중 가장 많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의존명사 구성이 가장 많이 보인다.

(5) 한국어고급 I, II

- 가. 의존명사 구성: -(으)르 듯이,⁸⁾ -(으)르 듯하다,⁹⁾ -(으)르 듯싶다,¹⁰⁾
-(으)르 바,¹¹⁾ -(으)르 뿐, -(으)르 것이 아니라,
-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¹²⁾ -(으)르 만큼,
앞으로 -(으)르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저는 -(으)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 나. 일반명사 구성: -(으)르 경우에(는),¹³⁾ -(으)르 정도로,
-(으)르 정도이다 (3)
- 다. 어미 구성: -(으)르걸요?, -(으)르뿐더러, -(으)르래(요)?,
-(으)르까 봐 걱정이다 (4)
- 라. 복합 구성: -(으)르 줄 알았더라면 -(으)르걸,
-(으)르 때에는 -는 것이 제일이다 (2)

(5)에서 제시한 표현 중에서 ‘-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 앞으로 -(으)르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저는 -(으)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르 때에는 -는 것이 제일이다’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들 표현을 상급 교재에서 다루어야 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들 표현은 다른 표현과 달리 어휘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관형사형어미 ‘-(으)르’ 결합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교재 중 서로 겹치는 구성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 복합 구성으로 본 ‘-(으)르래야 -(으)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의존명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으)르 듯하다, -(으)르 리 없다, -(으)르 바’ 등이 세 개 이상의 교재에서 겹치는

구성이다. 일반명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으)ㄴ 정도’ 구성이 세 개 이상의 교재에서 나왔다. 어미 구성과 관련해서는 ‘-(으)ㄴ까’ 구성과 ‘-(으)ㄴ지’ 구성이 세 개 이상의 교재에서 제시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과 관련해서 각 교재마다 다루는 구성이 그리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급 교재의 문법 사항을 정할 때 각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문법 사항을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

한국에서 각 대학마다 상급 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는 거의 없는데 우선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인 <韓国語上級(李昌圭, 2010)>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책에 제시된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은 19 개 정도인데, 의존명사 구성과 어미 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책에서는 초급 교재에서 다루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¹⁴⁾

(6) 韓国語上級

- 가. 의존명사 구성: -(으)ㄴ 수밖에 없다, -(으)ㄴ 뻔하다, -(으)ㄴ 듯하다,¹⁵⁾
 -(으)ㄴ 거래요, -(으)ㄴ 리가 없다, -(으)ㄴ 게 뻔하다¹⁶⁾
 -(으)ㄴ 테니까, -(으)ㄴ 텐데,¹⁷⁾ -(으)ㄴ 듯 말 듯,¹⁸⁾
 -(으)ㄴ 모양이다¹⁹⁾ (10)
- 나. 일반명사 구성: -(으)ㄴ 정도로 (1)
- 다. 어미 구성: -(으)ㄴ까요?, -(으)ㄴ수록, -(으)ㄴ지, -(으)ㄴ까 하다,
 -(으)ㄴ걸요, -(으)ㄴ까 말까 하다, -(으)ㄴ지라도,
 -(으)ㄴ뿐이다 (8)

한국어 상급 교재는 아니지만 상급 교재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책에서 제시한 표현도 분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문법 사항을 어미와 관용표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의존명사 구성, 어미 구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은 24 개 정도 나온다. 의존명사 구성과 어미 구성이 12 개, 11 개로, 비슷한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7)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²⁰⁾

가. 의존명사 구성: -(으)ㄴ 나름이다, -(으)ㄴ 나위(가/도) 없다,
 -(으)ㄴ 등 말 등(하다), -(으)ㄴ 바를 모르다,
 -(으)ㄴ 법하다, -(으)ㄴ 셈이다, -(으)ㄴ 즈음에,
 -(으)ㄴ 지경(이다), -(으)ㄴ 턱이 있다/없다,
 -(으)ㄴ 판(에/이다), -(으)로써만이 -(으)ㄴ 수 있다,
 -(으)ㄴ 리 만무하다 (12)

나. 어미 구성: -(으)ㄴ는지(요), -(으)ㄴ라, -(으)ㄴ라고(요)(?),
 -(으)ㄴ라치면, -(으)ㄴ망정, -(으)ㄴ세, -(으)ㄴ세라,
 -(으)ㄴ지언정, -(으)ㄴ밖에,²¹⁾ -(으)ㄴ락 말락 하다,
 -(으)ㄴ뿐더러²²⁾ (11)

다. 복합 구성: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 (1)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의 경우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보다 더 많은 표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語上級(李昌圭, 2010)>은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와 겹치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그에 비해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는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도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문법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에 나오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교재에 나오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의 경우 동일한 표현도 있었지만 다른 표현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교재를 기획하고 만든 편찬자들이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사항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의 경우 상급 과정에서 어떤 문법 표현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출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참고로 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사항을 바탕으로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 보겠다.

2.3.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으)ㄴ’ 결합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의존명사 구성, 일반명사 구성, 어미 구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54 개의 결합 구성이 제시되는데 의존명사 구성은 31 개, 어미 구성은 22 개 정도이다.²³⁾ 의존명사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가. 의존명사 구성: -(으)르 것, -(으)르 것 같다, -(으)르 것이 아니라,
 -(으)르 나름이다, -(으)르 대로, -(으)르 듯,
 -(으)르 듯하다, -(으)르 따름이다, -(으)르 리가 없다,
 -(으)르 리가 있다, -(으)르 만큼, -(으)르 만하다,
 -(으)르 모양이다, -(으)르 바에, -(으)르 법하다,
 -(으)르 뻔하다, -(으)르 뿐만 아니라, -(으)르 뿐이다,
 -(으)르 수밖에 없다, -(으)르 수 없다, -(으)르 수 있다,
 -(으)르 줄, -(으)르 데고, -(으)르 데냐, -(으)르 데니,
 -(으)르 데니까, -(으)르 데다, -(으)르 데면, -(으)르 데야,
 -(으)르 데지만, -(으)르 텐데 (31)

나. 일반명사 구성: -(으)르 때 (1)

다. 어미 구성: -(으)르걸(요), -(으)르께(요), -(으)르까, -(으)르까 보다,
 -(으)르까요, -(으)르꼬, -(으)르는지, -(으)르라,
 -(으)르라고(요), -(으)라치면, -(으)르락 말락 하다,
 -(으)르란다, -(으)르래, -(으)르래야, -(으)르래요,
 -(으)르망정, -(으)르뿐더러, -(으)르수록, -(으)르지
 -(으)르지라도, -(으)르지언정, -(으)르지요 (22)

(8)에서 알 수 있듯이 관형사형어미 ‘-(으)르’ 결합 구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에 나오는 표현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대체로 제시되어 있다.

사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는 상급 표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급이나 중급 표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보다 그 표현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표현 중 어떤 표현을 상급 표현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휘 빈도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처럼 문법 표현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휘 빈도와 달리 문법 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 조사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문법 표현을 대상으로 상급 과정의 문법 사항을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표현만으로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사항을 정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사항의 경우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는 비단 ‘-(으)르’ 결합 구성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임시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단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문법 표현을 분석하여 ‘-(으)ㄴ’ 결합 구성 중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 사항을 제시하려고 한다.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에서 배운 문법 사항을 상급 과정에서 반복하거나 복습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에서 다른 문법 사항은 상급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3.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의 분석

3.1. 결합 형식을 중심으로 한 분석

3.1.1. 의존명사 구성

이 장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을 의존명사 구성, 일반명사 구성, 어미 구성, 복합 구성으로 나누고 이들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의존명사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급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의존명사 구성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의존명사는 ‘것, 나름, 대로, 듯, 따름, 리, 만, 만큼, 모양, 바, 법, 뻔, 뿐, 수, 줄, 터’ 등이다.

이 의존명사들이 연결되는 표현과 관련하여 의존명사 ‘듯’은 ‘-(으)ㄴ 듯’과 ‘-(으)ㄴ 듯하다’를 포괄한 것이고 ²⁴⁾ ‘뻔’은 ‘-(으)ㄴ 뻔만 아니라, -(으)ㄴ 뻔이다’를 포괄한 것이다. 이들 구성에 나오는 ‘듯, 뻔’을 의존명사로 분석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나름, 따름, 모양’ 등은 각각 ‘-(으)ㄴ 나름이다, -(으)ㄴ 따름이다, -(으)ㄴ 모양이다’ 구성으로만 쓰이지만 역시 의존명사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만, 법, 뻔’은 주로 ‘-(으)ㄴ 만하다, -(으)ㄴ 법하다, -(으)ㄴ 뻔하다’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이들을 의존명사로 다루는 데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만, 법, 뻔’을 의존명사로 제시하고 있고 그 하위어에 ‘만하다, 법하다, 뻔하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들 구성을 의존명사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에서 출판된 상급 교재와 <韓國語上級(李昌圭, 2010)>에 나오는 의존명사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구성은 상급 교재마다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9) 상급 교재의 의존명사 구성

-(으)ㄴ 것이 아니라, -(으)ㄴ 대로, -(으)ㄴ 듯/듯하다, -(으)ㄴ 듯 말 듯,
-(으)ㄴ 리가 없다, -(으)ㄴ 만큼, -(으)ㄴ 바에, -(으)ㄴ 법하다,

-(-으)ㄹ 뻔하다, -(-으)ㄹ 뿐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으)ㄹ 줄,
-(-으)ㄹ 테니까/테지만/텐데

이들 구성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상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으)ㄹ 것이 아니라, -(-으)ㄹ 듯/듯하다, -(-으)ㄹ 리가 없다, -(-으)ㄹ 만큼, -(-으)ㄹ 바에, -(-으)ㄹ 법하다,²⁵⁾ -(-으)ㄹ 뿐이다, -(-으)ㄹ 줄’ 등인데 ‘-(-으)ㄹ 바에’가 상급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의존명사 구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글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사항은 (9)에서 제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구성과 나오지 않는 구성을 구분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상급 교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 (10) <한글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의 의존명사 구성
가. -(-으)ㄹ 나뭇이다, -(-으)ㄹ 모양이다
나. -(-으)ㄹ 나위(가/도) 없다, -(-으)ㄹ 등 말 등(하다),
-(-으)ㄹ 바를 모르다,²⁶⁾ -(-으)ㄹ 셈이다, -(-으)ㄹ 즈음에,
-(-으)ㄹ 지경이다, -(-으)ㄹ 턱이 있다/없다, -(-으)ㄹ 판(에/이다),
-(-으)로써만이 -(-으)ㄹ 수 있다, -(-으)ㄹ 리 만무하다

(10 나)에서 제시한 의존명사 구성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이 중에서 ‘-(-으)ㄹ 리 만무하다’는 상급 교재에 나오는 ‘-(-으)ㄹ 리 없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으)로써만이 -(-으)ㄹ 수 있다’는 상급 교재에서 하나의 문법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으)ㄹ 판(에/이다)’는 ‘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알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 교재의 문법 표현으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들 구성을 제외한 ‘-(-으)ㄹ 나위(가/도) 없다, -(-으)ㄹ 등 말 등(하다)’ 등은 상급 교재에서 다룰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표현을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상급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들 표현을 익혀서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들 표현이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문법 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 조사는 어휘 빈도 조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문법 표현에 대한 빈도 조사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급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존명사 구성 중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ㄹ’ 뒤에 ‘것’이 연결되는 표현이 많은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존명사 구성

- (-으)ㄴ 게 뻔하다, -(-으)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 (-으)ㄴ 것까지는 없겠지만, -(-으)ㄴ 게/것이 아니라,
- 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 앞으로 -(-으)ㄴ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 저는 -(-으)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으)ㄴ 거래요

이들 표현 중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것은 ‘-(-으)ㄴ 것이 아니라’ 정도이다. 다른 표현의 경우 상급 교재에서 문법 사항으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 아닐까 한다. <ハングル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는 ‘것’을 포함한 구성이 보이지 않는다.

의존명사 ‘터’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으)ㄴ 테고, -(-으)ㄴ 테냐’ 등 9 개 정도의 구성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상급 교재에서는 ‘-(-으)ㄴ 테니까, -(-으)ㄴ 테지만, -(-으)ㄴ 텐데’만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의존명사 ‘터’와 ‘이다’가 결합한 ‘터이다’가 줄어든 표현인 ‘-(-으)ㄴ 테고/테냐/테니까/테지만/텐데’ 등은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들을 별개의 문법 사항으로 다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3.1.2. 일반명사 구성

다음으로 상급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명사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상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일반명사는 ‘경우, 때, 전망, 정도, 확률’ 등이다. 이들이 나타나는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일반명사 구성

- (-으)ㄴ 정도이다/정도로, -(-으)ㄴ 확률이 높다, -(-으)ㄴ 전망이다,
- (-으)ㄴ 경우(에)(는), -(-으)ㄴ 때에는 -는 것이 제일이다

(12)에서 제시한 표현은 주로 서울대 교재와 경희대 교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들 표현을 문법 표현으로 다루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으)ㄴ 때’만 나온다. <ハングル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서는 일반명사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경우’에 대해서만 ‘(흔히 관형어 뒤에 쓰여) 놓여 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을 나타낸다고 나오고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관형사형어미 ‘-(-으)ㄴ’을 포함한 일반명사 구성은 상급 교재에서 문법

사항으로 다루지 않아도 될 듯하다.

3.1.3. 어미 구성

마지막으로 어미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미 구성은 상급 교재,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등에서 의존명사 구성과 비슷한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상급 교재에 나오는 표현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구성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상급 교재의 어미 구성

- (으)르걸(요), - (으)르까(요), - (으)르까 보다, - (으)르라치면,
- (으)르래야, - (으)르래요, - (으)르뿐더러, - (으)르수록, - (으)르지
- (으)르지라도

이들 중에서 ‘-(으)르래야’의 경우 많은 상급 교재에서 ‘-(으)르래야 - (으)르 수(가) 없다’ 구성으로 다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으)르래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상급 교재에서 문법 표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상급 교재 등에서 많이 다루는 어미 구성은 ‘-(으)르걸(요), - (으)르까, ‘-(으)르까 보다, - (으)르뿐더러, - (으)르지, - (으)르지라도’ 등인데 ‘-(으)르걸(요), - (으)르까’의 경우 상급 교재에서 다루어야 하는 표현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만 나오는 어미 구성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도 나오는 구성과 이 책에만 나오는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의 어미 구성

- 가. - (으)르는지, - (으)르라, - (으)르라고(요), - (으)르락 말락 하다,
- (으)르망정, - (으)르지언정
- 나. - (으)르세, - (으)르세라, - (으)르밖에

(14 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도 나오는 구성이고 (14 나)는 이 책에만 나오는 구성이다. (14 가)에 나오는 구성은 상급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법 사항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14 나)에 나오는 ‘-(으)르세, - (으)르세라’는 이 책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표현인지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으)르세’는 ‘하계체’와 관련된 문법 사항에서 다룰 수 있는 표현이고 ‘-(으)르세라’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연결어미를 상급 과정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다룰 수 있는 표현이다.

‘-(으)르세’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르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으)르세’는 ‘하게할 자리에 쓰여, 추측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두 번째 ‘-(으)르세’는 ‘하게할 자리에 쓰여,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로 뜻풀이하고 있다. 둘 다 하게체와 관련하여 쓰이는 어미이지만 추측이나 의도와 관련되는 ‘-(으)르세’는 잘 쓰이지 않는 어미라고 할 수 있는데 <ハングル 検定合格 トウミ (도우미) 上級編(2級)>에서도 ‘-(으)르세’에 대해 ‘~だよ’로 제시하고 있다. 역시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으)르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으)르밖에’와 관련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을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이 표현이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3.2. 의미를 중심으로 한 분석

3.2.1. ‘-(으)ㄴ/는/(으)르’의 대립을 보이는 구성

지금까지 ‘-(으)르’ 결합 구성을 의존명사 구성, 일반명사 구성, 어미 구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으)르’ 결합 구성이 관형사형어미 ‘-(으)ㄴ’, ‘-는’ 결합 구성과 대립을 보이는 경우와 ‘-(으)르’ 결합 구성만이 사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의미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결합 형식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다른 ‘-(으)르’ 결합 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급 교재와 <ハングル 検定合格 トウミ (도우미) 上級編(2級)>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의존명사 구성과 어미 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관형사형어미 ‘-(으)ㄴ/는’ 결합 구성과 대립을 보이는 경우에 대하여 논하겠다. 의존명사 구성과 관련하여 상급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등에서 관형사형어미 ‘-(으)르’ 결합 구성이 ‘-(으)ㄴ/는’ 결합 구성과 같이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관련어 정보에서 ‘-(으)ㄴ/는’ 결합 구성이 제시된 것과 상급 교재에서 ‘-(으)ㄴ/는’ 결합 구성이 제시된 것을 대상으로 ‘-(으)ㄴ/는/(으)르’ 형식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결합 정보도 참조하였다.

(15) ‘-(으)ㄴ/는/(으)르’ 결합 구성이 가능한 의존명사 구성

- 가. -(으)ㄴ/는/(으)르 대로, -(으)ㄴ/는/(으)르 듯, -(으)ㄴ/는/(으)르 듯하다,
-(으)ㄴ/는/(으)르 만큼, -(으)ㄴ/는/(으)르 모양이다,
-(으)ㄴ/는/(으)르 수밖에 없다,²⁷⁾ -(으)ㄴ/는/(으)르 줄,
- 나. -(으)ㄴ/는/(으)르 바,²⁸⁾ -(으)ㄴ/는/(으)르 등 말 등(하다),
-(으)ㄴ/는/(으)르 셈이다, -(으)ㄴ/는/(으)르 지경이다,

(15 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제시된 관련어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고 (15 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ㄴ/는/(으)ㄴ’ 결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결합 구성 중에서 의존명사의 의미가 ‘-(으)ㄴ/는’이 결합된 경우와 ‘-(으)ㄴ’이 결합된 경우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있다. ‘대로, 바, 셈’ 등이 그렇다. ‘대로’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는 대로’에 대해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시’라고 뜻풀이하고 있고 ‘-(으)ㄴ 대로’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로 뜻풀이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는 대로’와 ‘-(으)ㄴ 대로’의 뜻을 다르게 설명하였다.

‘바’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ㄴ/는/(으)ㄴ 바에’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을 나타내고 ‘-(으)ㄴ 바’는 ‘일의 방법이나 방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으)ㄴ 바에’에 대해 ‘앞 문장의 일이 뒤 문장의 일보다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같은 의존명사 형태라도 결합 구성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 ‘셈’의 경우도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ㄴ/는/(으)ㄴ 셈이다’는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고 ‘-(으)ㄴ 셈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대로’, ‘바’, ‘셈’의 경우 상급 과정에서 그 결합 구성을 가르친다면 ‘대로’, ‘바’, ‘셈’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구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등, 듯, 만큼, 모양, 수, 줄, 지경’ 등은 관형사형어미 ‘-(으)ㄴ/는/(으)ㄴ’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그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등, 듯, 수, 지경’ 등이 그렇다. 하지만 ‘만큼’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ㄴ/는/(으)ㄴ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으)ㄴ/는/던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로 뜻풀이하고 있다. ‘-(으)ㄴ’ 결합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같은 관형사형어미가 연결되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역시 이러한 의미 차이를 교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존명사 ‘모양, 줄, 판’과 관련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형사형어미에 대한 특별한 결합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양’은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줄’은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 '판'은 '처지, 판국, 형편'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관형사형어미 '-(으)ㄴ/는/(으)ㄹ'이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으)ㄴ/는/(으)ㄹ 듯', '-(으)ㄴ/는/(으)ㄹ 듯하다', '-(으)ㄴ/는/(으)ㄹ 만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6) '듯, 만큼, 모양' 결합 구성의 의미 설명

- 가. -(으)ㄴ 듯: 짐작이나 추측(과거의 상황과 견주어 추측할 때 쓴다.)
 - 는 듯: 짐작이나 추측(무언가가 그 상황과 견주어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으)ㄹ 듯: 짐작이나 추측(무언가가 그 상황과 견주어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나. -(으)ㄴ 듯하다: 추측(과거의 사건이나 상태를 추측할 때 쓴다.)
 - 는 듯하다: 추측(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낸다.)
 - (으)ㄹ 듯하다: 추측(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을 나타낸다.)
- 다. -(으)ㄴ 만큼: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임을 나타내거나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앞 내용이 과거에 관한 것일 때 쓴다.)
 - 는 만큼: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임을 나타내거나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 (으)ㄹ 만큼: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임을 나타낸다.
- 라. -(으)ㄴ 모양이다: 추측(앞 내용이 과거의 일일 때 쓴다.)
 - 는 모양이다: 추측(다른 상황으로 미루어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으)ㄹ 모양이다: 추측(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16)에 나오는 '-(으)ㄴ/는/(으)ㄹ 듯', '-(으)ㄴ/는/(으)ㄹ 듯하다', '-(으)ㄴ/는/(으)ㄹ 만큼',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등의 뜻풀이를 보면 그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는'과 '-(으)ㄹ'이 연결된 구성의 경우 그 뜻풀이가 동일한 것도 있다.

관형사형어미의 의미는 대체로 '-(으)ㄴ'은 '과거', '-는'은 '현재', '-(으)ㄹ'은 '추측'이나 '의지' 등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만으로는 관형사형어미가 결합된 구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관형사형어미의 의미를 '-(으)ㄴ/는'은 '이미 일어난 또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쓰이고 '-(으)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또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과 관련하여 쓰이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관형사형어미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면 관형사형어미가 결합된 구성의 차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형사형어미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할 사항인 것이다.

다음으로 어미 구성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으)르' 결합 구성이 '-(으)ㄴ/는' 결합 구성과 같이 제시된 것은 '-(으)르지'밖에 없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으)ㄴ지', '-는지', '-(으)르지', '-(으)르는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상급 교재에서는 어미 구성과 관련하여 '-(으)르' 결합 구성만 나온다. 다음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으)ㄴ지', '-는지', '-(으)르지', '-(으)르는지'의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17) '-(으)ㄴ지/는지/(으)르지/(으)르는지'의 의미

가. -(으)ㄴ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다.²⁹⁾

나. -는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다.

다. -(으)르지: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다. 뒤의 내용에 대한 막연한 이유나 상황을 추정할 때 쓴다.

라. -(으)르는지: 뒤에 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앞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³⁰⁾

(17 가, 나, 다)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으)ㄴ지/는지/(으)르지'의 경우 의미 차이를 그리 찾을 수 없고 (17 라)의 '-(으)르는지'만 다른 구성과 의미 차이를 보인다. 어미 구성에서 '-(으)ㄴ/는/(으)르'이 모두 결합되는 구성인 '-(으)ㄴ지/는지/ (으)르지'에서 의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역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3.2.2. '-(으)르'만 결합되는 구성

이번에는 '-(으)르' 결합만 가능한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의존명사 구성과 관련하여 관형사형어미 '-(으)르' 결합 구성만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18) '-(으)르' 결합 구성만 가능한 의존명사 구성

가. -(으)르 것이 아니라, -(으)르 나름이다, -(으)르 대로,

-(으)르 리가 없다, -(으)르 바, -(으)르 범하다, -(으)르 뻔하다,

-(으)르 뿐이다, -(으)르 테니까/테지만/텐데

나. -(으)ㄴ 나위(가/도) 없다, -(으)ㄴ 셈이다, -(으)ㄴ 즘음에,
-(으)ㄴ 턱이 있다/없다

(18 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제시된 관련어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고 (18 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의존명사 ‘대로, 마, 셈’의 경우 ‘-(으)ㄴ’만 연결되는 구성과 ‘-(으)ㄴ/는/(으)ㄴ’이 모두 연결되는 구성에서 각각의 의존명사의 의미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으)ㄴ’만 연결되는 구성에서 이들 결합 구성을 다시 제시하였다. ‘-(으)ㄴ 것이 아니라’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앞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주로 뒤에 명령이나 권유의 표현이 나와야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으)ㄴ/는 것이 아니라’ 구성은 어려워 보여 ‘-(으)ㄴ’만 결합되는 구성에서 제시하였다.

의존명사 ‘법, 터’의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ㄴ/는’이 연결되는 구성과 ‘-(으)ㄴ’이 연결되는 구성의 뜻을 달리하고 있다. ‘-(으)ㄴ/는 법이다’는 ‘앞말의 동작이나 상태가 당연함을 나타내는 말’로, ‘-(으)ㄴ 법’은 ‘어떤 일이 그럴 것 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으)ㄴ/는/던 터’는 ‘처지, 형편’을, ‘-(으)ㄴ 터’는 ‘예정, 추측,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법, 터’가 연결되는 구성의 경우 ‘-(으)ㄴ/는’이 연결되는 구성과 구별하여 ‘-(으)ㄴ’만 연결되는 구성을 ‘-(으)ㄴ’ 결합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나름, 리, 뻔, 뿐’ 등의 경우 이들이 연결된 구성은 ‘-(으)ㄴ’ 결합 구성으로만 쓰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 ‘-(으)ㄴ 나름이다’는 ‘어떤 일이나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았다.³¹⁾ ‘-(으)ㄴ 리 없다’는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으)ㄴ 뻔하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으)ㄴ 뿐이다’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나 상황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이들 구성에 나타나는 관형사형어미 ‘-(으)ㄴ’은 ‘-(으)ㄴ’이 가지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추측, 의지’와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런 의미 상황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으)ㄴ’이나 ‘-는’은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18 나)의 ‘나위, 즘음, 턱, 판’과 관련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참조할 수 있다. ‘-(으)ㄴ 나위 없다’ 구성에서의 ‘나위’는 ‘더 할 수 있는 여유나 더 해야 할 필요’로 설명되고 있고 ‘ 즘음’도 관형사형어미 ‘-(으)ㄴ’ 뒤에서 ‘일이 어찌될 무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턱’은 주로 ‘-(으)ㄴ 턱이 없다’ 구성으로 쓰여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로 뜻풀이하였다. 이들 모두 관형사형어미 '-(으)ㄹ'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ㄹ'만 결합되는 의존명사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관형사형어미 '-(으)ㄹ'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으)ㄹ' 결합 구성만 가능한 어미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부분의 어미 구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상급 교재, <ハングル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 나오는 어미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으)ㄹ' 결합 구성만 가능한 어미 구성

- 가. -(으)ㄹ결(요), -(으)ㄹ까(요), -(으)ㄹ까 보다, -(으)ㄹ라치면,
-(으)ㄹ래야, -(으)ㄹ래요, -(으)ㄹ뿐더러, -(으)ㄹ수록, -(으)ㄹ지라도
- 나. -(으)ㄹ라, -(으)ㄹ라고(요), -(으)ㄹ락 말락 하다, -(으)ㄹ망정,
-(으)ㄹ지언정, -(으)ㄹ세, -(으)ㄹ세라, -(으)ㄹ밖에

앞에서 지적했듯이 (19 나)의 '-(으)ㄹ세, -(으)ㄹ세라, -(으)ㄹ밖에'는 <ハングル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만 나오는 구성이다. 이들 구성과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ㄹ세'는 '추측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으)ㄹ세라'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할까 염려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설명하였다. '-(으)ㄹ밖에'는 '-(으)ㄹ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라고 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어미 구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의 설명을 주로 참조하였는데, 이 책에서 '-(으)ㄹ결(요), -(으)ㄹ까(요), -(으)ㄹ까 보다'는 '추측'이나 '의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으)ㄹ래야, -(으)ㄹ래(요)'와 '-(으)ㄹ라, -(으)ㄹ라고'는 '의도, 의지' 또는 '그렇게 될까 걱정함,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의심' 등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으)ㄹ라치면, -(으)ㄹ지라도'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조건으로 삼거나 가정하여 반대의 상황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으)ㄹ뿐더러, -(으)ㄹ수록, -(으)ㄹ락 말락하다'도 '다른 상황이 있다'는 의미나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 또는 '어떤 상황이 거의 일어나거나 그런 정도에 가깝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으)ㄹ망정, -(으)ㄹ지언정' 역시 '앞 문장의 내용과 대조되는 상황이 뒤에 음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19)에서 제시한 어미 구성의 경우 그 의미를 다 포괄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미 구성이 '추측', '의지', '걱정' 등의 의미와 관련이 되고 '조건'이나 '가정'의 상황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관형사형어미 '-(으)ㄹ'이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추측'이나

‘의도’ 또는 ‘어떤 상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결국 관형사형어미 ‘-(으)ㄴ’이 결합된 의존명사 구성이나 어미 구성의 경우 ‘-(으)ㄴ’이 가지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형사형어미 ‘-(으)ㄴ’의 의미나 기능, 그리고 ‘-(으)ㄴ’, ‘-는’ 같은 다른 관형사형어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다룰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국어 상급 교재 등에 나오는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다룰 수 있는 ‘-(으)ㄴ’ 결합 구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상급 교재에서 다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상급 교재와 <ハングル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 나오는 ‘-(으)ㄴ’ 결합 구성이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은 우선 상급 교재에 나오는 표현 중 초급 과정이나 중급 과정에서 배우는 또는 배울 것으로 생각되는 표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나 단어의 뜻을 알면 어느 정도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특별한 결합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상급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으)ㄴ’ 결합 구성을 상급 교재와 <ハングル検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 나오는 구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존명사 구성과 어미 구성만 제시하였다.

(20) 한국어 상급 교재에서 다룰 ‘-(으)ㄴ’ 결합 구성

가. 의존명사 구성

- (으)ㄴ 것이 아니라, - (으)ㄴ 대로, - (으)ㄴ 듯/듯하다, - (으)ㄴ 듯 말 듯,
 - (으)ㄴ 리가 없다, - (으)ㄴ 만큼, - (으)ㄴ 바에, - (으)ㄴ 바를 모르다,
 - (으)ㄴ 법하다, - (으)ㄴ 뿐이다, - (으)ㄴ 셈이다, - (으)ㄴ 줄, - (으)ㄴ 텐데

나. 어미 구성

- (으)ㄴ까 보다, - (으)ㄴ는지, - (으)ㄴ라, - (으)ㄴ라고(요), - (으)ㄴ라치면,
 - (으)ㄴ라 말라 하다, - (으)ㄴ래야,³²⁾ - (으)ㄴ망정, - (으)ㄴ뿐더러,
 - (으)ㄴ수록, - (으)ㄴ지, - (으)ㄴ지라도

(20)에서 상급 교재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본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들 표현을 모두 상급 교재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에 제시되지 않은 구성 중에 상급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성도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으)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에서 ‘-(으)ㄴ’ 결합 구성으로만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형사형어미가 모두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으)ㄴ/는/(으)ㄴ’ 결합 구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상급 교재에서 사용할 문법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해야 할 작업이 많다 하겠다. 앞으로 문법 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 조사 등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가지고 상급 교재에서 사용할 문법 표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상급 교재를 대상으로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을 각각 의존명사 구성, 일반명사 구성, 어미 구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국어 상급 교재의 경우 한국에서는 각 대학마다 상급 교재를 출판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상급 교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글 능력檢定試驗協會의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 나오는 표현도 대상으로 하였고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 나오는 표현도 참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상급 교재에 나오는 ‘-(으)ㄴ’ 결합 구성의 경우 각 교재에서 다루는 구성이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의존명사 구성의 경우 관형사형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것은 ‘것, 나름, 대로, 듯, 따름, 리, 만, 만큼, 모양, 바, 법, 뿐, 뿐, 수, 줄, 터’ 등인데 본고에서 상급 교재의 문법 사항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은 ‘것, 대로, 듯, 리, 만큼, 바, 법, 뿐, 셈, 줄, 터’ 등이 연결되는 구성이었다. 일반명사 구성의 경우에는 상급 교재의 문법 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았다. 어미 구성의 경우 초급이나 중급 교재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 구성을 제외하고 ‘-(으)ㄴ까 보다, -(으)ㄴ는지, ‘-(으)ㄴ라’ 등 12 개 정도의 어미 구성을 상급 교재에서 문법 사항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의미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서는 관형사형어미 ‘-(으)ㄴ/는/(으)ㄴ’이 모두 연결되는 구성과 ‘-(으)ㄴ’만 연결되는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으)ㄴ/는/(으)ㄴ’이 모두 연결되어 의미 차이를 보이는 구성의 경우 ‘-(으)ㄴ’만 결합되는 구성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으)ㄴ/는’이 결합되는 구성과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관형사형어미가 가지는 의미가 결합 구성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관형사형어미가 결합된 구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으)ㄴ’만

연결되는 결합 구성의 경우에도 ‘가능성, 추측, 의지’ 등 관형사형어미 ‘-(으)ㄴ’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으)ㄴ’ 결합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상급 교재의 문법 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 하겠다. 기존의 논의에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 것은 많았지만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문법 사항만을 대상으로 논의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초급, 중급, 상급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법 사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 빈도 조사와 같은 문법 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 조사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제 231 회 조선어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註>

- 1)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한국어 4), 연세대학교(연세한국어 5, 6), 고려대학교(재미있는 한국어 5, 6), 이화여자대학교(말이 트이는 한국어Ⅳ), 경희대학교(한국어고급 I, II)
- 2) 본고에서 관형사형어미 ‘-(으)ㄴ’ 결합 구성으로 부르는 구성은 사실 ‘-(으)ㄴ’이 포함된 어미 구성도 다루기 때문에 관형사형어미 ‘-(으)ㄴ’ 구성으로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으)ㄴ’이라는 형태에 주목하여 어미 구성도 논의에 포함시켰다.
- 3) <서울대 4>에서는 ‘-(으)ㄴ/는/(으)ㄴ 경우(에)(는)’으로 제시된다.
- 4) <연세 한국어 5, 6>에서는 ‘-(으)ㄴ’이 ‘-을/ㄴ’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으)ㄴ’로 제시하였다.
- 5)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듯이’로 제시된다.
- 6)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바’로 제시된다.
- 7)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정도’로 제시된다.
- 8)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듯이’로 제시된다.
- 9)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듯하다’로 제시된다.
- 10)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듯싶다’로 제시된다.
- 11)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바’로 제시된다.
- 12) 이 책에서는 ‘-다고 할 것까지야 없다 / -(이)라고 할 것까지야 없다 / -(이)랄 것까지야 없다’로 제시된다.
- 13) 이 책에서는 ‘-(으)ㄴ/는/(으)ㄴ 경우(에)(는)’으로 제시된다.
- 14) 이 책에 나오는 표현 중 띄어쓰기가 잘못 제시된 것은 본고에서 수정하였다.
- 15) 이 책에서는 ‘-는/(으)ㄴ/ㄴ 듯하다’로 제시된다.
- 16) 이 책에서는 ‘-(으)ㄴ게뻔하다’로 제시된다.
- 17) 이 책에서는 ‘-(으)ㄴ테니까, -(으)ㄴ테데’로 제시된다.
- 18) 이 책에서는 ‘-(으)ㄴ듯말듯’으로 제시된다.
- 19) 이 책에서는 ‘-는/(으)ㄴ/ㄴ 모양이다’로 제시된다.
- 20) 이 책에서는 ‘-ㄴ/을’ 형태로 제시하지만 본고에서는 ‘-(으)ㄴ’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의존명사의 처리와 띄어쓰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라 제시한다. 이 책에서 잘못 제시된 것을 수정하였다.

- 21) 이 책에서는 이 형태를 ‘-(으)ㄴ 밖애’로 제시하였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ㄴ밖애’를 종결어미로 처리하였다.
- 22) 이 책에서 ‘-(으)ㄴ뵤더러’는 관용표현으로 제시된 것이다.
- 23) 이 책에서는 ‘-(으)ㄴ’도 제시되지만 본고에서는 결합 구성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 24) <韓國語上級(李昌圭, 2010)>에 나오는 ‘-(으)ㄴ 듯 말 듯’도 여기에 포함된다.
- 25) ‘-(으)ㄴ 뵤하다’는 연세대 상급 교재와 <ハングル檢定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2級)>에 나온다.
- 26) 이 표현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ㄴ 바’와 ‘-(으)ㄴ/는/(으)ㄴ 바애’의 뜻을 다르게 하고 있다. ‘-(으)ㄴ 바’의 경우에는 일의 방법이나 방도를 나타내고 ‘-(으)ㄴ/는/(으)ㄴ 바애’의 경우에는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리된 형편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상급 교재에서는 ‘-(으)ㄴ 바애’를 문법 사항으로 제시했지만 이 책에서는 ‘-(으)ㄴ 바를 모르다’를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서 그 구성을 추가하였다. ‘-(으)ㄴ 바’와 ‘-(은)ㄴ/는/(으)ㄴ 바애’의 경우 의존명사 ‘바’ 앞에 연결되는 관형사형어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 2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으)ㄴ 수밖에 없다’에 대해 ‘-는/(으)ㄴ’ 결합 정보만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ㄴ/는/(으)ㄴ 수 있다/없다’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 2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는 ‘-(으)ㄴ 바애’에 대해 ‘-(으)ㄴ’ 결합 구성만 제시되어 있지만 <말이 트이는 한국어 4>, 경희대의 <한국어고급 I, II>에서는 ‘-(으)ㄴ/는/(으)ㄴ 바’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애’에 대해서 ‘-(으)ㄴ/는/(으)ㄴ 바애’ 구성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의존명사 ‘바’와 관련해서는 ‘-(으)ㄴ/는/(으)ㄴ’이 다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9) ‘-(으)ㄴ지/는지/(으)ㄴ지 모르다’ 구성으로 쓰일 때는 앞선 상황이 상당함을 강조할 때나 앞 내용에 대해 추측할 때, 걱정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30) ‘-을는지 모르다/알 수 없다’ 구성의 경우에는 앞선 내용의 실현될 가능성에 대한 말하는 사람 스스로의 의문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31) ‘-(으)ㄴ 나름이다’는 ‘-기 나름이다’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 나름이다’ 구성에서 다루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에서도 ‘-(으)ㄴ 나름이다’ 항목에서는 이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 나름이다’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 32) ‘-(으)ㄴ래야 -(으)ㄴ 수 없다’ 구성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參考文獻>

논문

- 강현화(2007), 「한국어 교재의 문형유형 분석 - 문형 등급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18.
- 김유미(2005), 「문형 사전을 위한 문형 빈도 조사」, 『인지과학』 16-2.
- 김춘화(2007), 「한국어 교재의 어휘빈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2009),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 유현경(2009),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한 연구 - 시제 의미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語文學』 104.

- 이상숙(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
『韓國言語文學』 72.
- 이혜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12.
-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9.
- 홍윤기(2010), 「문법 교육 항목으로서의 새로운 관형사절 도입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42.

한국어 교재 및 사전류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7), 『한국어고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7), 『한국어고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5』,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6』, 교보문고.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3), 『한국어 4』,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1), 『연세대학교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1), 『연세대학교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李昌圭(2010), 『韓國語 上級』, 白帝社
-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2006),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合格トウミ(도우미)上級編』,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韓国語上級教材における冠形詞形語尾

‘-(으)ㄴ’結合構成について

權容璟

神田外語大学

本稿では、韓国語上級教材を対象として、冠形詞形語尾 ‘-(으)ㄴ’の結合構成を、各々、依存名詞構成、一般名詞構成、語尾構成に分けて考察した。依存名詞構成の場合、本稿において上級教材の文法事項として扱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考えたものは、‘것, 대로, 듯, 리, 만큼, 마, 법, 뿐, 셈, 줄, 터’等が連結される構成であった。一般名詞構成の場合には、上級教材の文法事項として扱わないことが、よりよいと考えた。語尾構成の場合初級や中級教材において扱うものとみられるものを除外して、‘-(으)ㄴ까 보다, -(으)ㄴ는지, -(으)ㄴ라’等 12個程度の語尾構成を上級教材において文法事項として扱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考えた。

語尾を中心とした考察においては、冠形詞形語尾 ‘-(으)ㄴ/는/(으)ㄴ’がすべて連結される構成と、‘-(으)ㄴ’だけが連結される構成に分けて調査してみた。‘-(으)ㄴ/는/(으)ㄴ’がすべて連結され意味の違いを見せる構成の場合、‘-(으)ㄴ’だけが結合される構成だけを教えるよりは、‘-(으)ㄴ/는’が結合される構成と比較しつつ教えるのが、より効果的であ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これらの冠形詞形語尾が持つ意味が、結合構成において維持される場合があるからである。しかし、そうでない場合もあり、冠形詞形語尾が結合された構成の意味と関連しては、今後さらに考察する必要がある。